

◆며느리권씨 일전 18-2

## 덕종(德宗)의 귀인 권씨(추밀공파? 권치명(權致命)의 딸, ?世)의 사라진 시신(屍身)!

## 사건 발생

1477년(성종 8) 당시 권씨는 궁중에 새로 후궁으로 뽑혀 들어온 성종의 후궁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권씨의 집에 3월 20일 언문으로 된 투서가 떨어졌다. 성종의 두 후궁 정 소용과 엄숙의가 왕비 윤씨와 원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상에 오래 살게 되면 보지 않을 일이 없다. 이날 20일에 감찰(監察) 집에서 보냈다고 일컬으면서 권숙의(權淑儀)의 집에 언문을 던지는 자가 있었는데, 권숙의의 집에서 주위 보니 정소용(鄭昭容)과 엄숙의(嚴淑儀)가 서로 통신(通信)하여 중궁(中宮)과 원자(元子)를 해치려고 한 것이다. 생각건대, 정소용이 한 것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 바야흐로 임신하였으므로 해산한 뒤에 국문하려고 한다.『성종실록』, 성종 8년 3월 29일의 기록이다.

이것이 사실은 연산군의 생모 윤왕후가 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궁중의 삼전(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현재 왕 성종의 생모 소혜왕후)은 왕비 윤씨를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현재 왕비 윤씨부터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급 왕비까지 다 살아있음을 알수 있다. 게다가 권력자 한명희의 딸이 첫 번째 왕후였다는 일찍 죽은 권력의 공백등등 갈등 상황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윤 왕비의 침실에 있는 작은 취구멍에 비상(砒霜)과 굿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이 담긴 상자를 숨겨 둔 것이 적발되었다. 이에 3월 29일 대왕대비가 언문으로 쓴 교지를 내린 것이다. 투서가 떨어지고 열흘도 안돼서 벌어진 일이었다. 심지어 언문교지에는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니 연산군 생모 폐비 문제를 불거지고 분란이 생긴 것이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왕비 폐위’에 찬동하지 않았고 구국 만류하면서, 별궁으로 물러나는 별거 수준을 권하였다. 그러나 1479년(성종 10) 결국 왕비는 폐출되어 사가로 내쫓겼다.

그 뒤는 비극적 종말과 ‘금삼의 피’로 대변되는 조선 최대의 피의 잔치가 연출되는 단초가 마련되니 이쯤 되면 이제 누군가는 한편이 모두 죽거나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마는 것이다.

## 불교신봉과 사라진 시신

권씨는 불교를 신봉해서 1484년(성종 15) 절터만 남아 있었던 지금 안암동 소재, 안암사(安巖寺)를 다



정업원터에 자리잡은 청룡사.(서울유형문화재 5호, 종로구 송인동 산 3번지)

시 중창할 뜻을 가져 귀인 권씨의 발원과 대왕대비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의 뜻에 의해 성종이 허락하고 절에 민전(民田)을 지급하니 조정에서 대신들은 이단 숭배라고 반대가 심하였다. 이에 성종은 고적복원은 가능하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결국 1504년(연산군 10)에 폐사되었고 지금은 자취조차 없다.

1494년(성종 25) 귀인 권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성종은 내일 모례 연회를 베풀어야 하지만, 차마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며 중지하도록 하였다.

1494년(성종 25) 권씨가 세상을 떠나고, 1498년(연산군 4) 김일손이 쓴 사초가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초 때문에 권씨는 죽어서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숨기오리까. 신이 들자오니 ‘권 귀인(權貴人)은 바로 덕종(德宗)의 후궁(後宮)이운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하옵기로, 신은 이 사실을 썼습니다.” 이건 뭐 안그래도 적장자인 연산군이 왕권을 휘두를 때이니 머리 아픈 대신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기회라 생각하여, 이 말은 시아버지 세조가 며느리와 간통하려고 했다는 소리다.

당장 피바람이 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김일손은 이 말을 귀인 권씨의 언니의 아들이며 양지인 허반에게서 들었다고 하였으나 내용이 다르자 모두 잡아죽이는 판이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에 투서 사건이 다시 들춰졌다. 벌써 200여 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권씨의 집에 떨어진 투서였으므로 권씨도 똑같이 치죄이나 권씨는 이미 죽어 땅에 묻힌 뒤여서 묘를 파내게 하였더니 안은 텅 비었고 빙 널빤지 뿐이었다. 사실 권씨는 불교를 신봉하여 비구니 혜명(惠明)을 시켜 비밀리에 자신의 시체를 화장하게 만들었고, 무덤은 걸모습 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연산군의 행패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교신도로서 며느리 같은 조카 허반(許磐)의 치에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불태워야 한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조에는 불교가 탄압을 받아도 유교와는 다른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살아 남아 있었다. 누구나 복을 빌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바램은 있었고, 또 여인들은 특히 이런 면에서 약한 것이다.

유교식으로 하면 화장은 불법이다. 그리고 당시 화장(火葬)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었다. 화장을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만 모든 것은 인간의 관념의 문제이다.

다. 제사는 관습이며 그것을 지키던 안지기던 모두 시대에 따르면 된다. 기제사를 망인의 기일 바로 전날 밤 시작하여 새벽 한시에 시작함은 농경문화이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하고 새벽 일을 나가면 되는 구조였다.

하여간 시신이 사라진 것에 황당하면서도 분노한 연산군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관련자인 여승(女僧)을 심문하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이른바 ‘닭죽던 개’ 신세가 된 것이다.

이렇듯 덕종의 부인인 권씨는 비록 덕종의 후궁으로 일년도 살지 못하고 후사도 없이 갔으나 어디 이런 여인이 한 둘이 겠는가? 부디 그녀의 고혼에 안식의 땅을 드리고 해원하는 안동권씨대종회의 노력이 있다면 후대에 교육적으로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 懷念王室權門女

왕실에 간 권문의 여인을 그리며 진하吟.

## 千年不捨福州權.

천년을 이어온 복된 땅, 안동의 권씨 가문 출신으로 鮮闕王娟 八室緣.

조선조 궁궐 왕의 여인으로 인연 맷은, 여덟 여인 內命貴尊 不二用.

내명부 왕비와 빙으로 존귀하나 그 신세는 같아서 間閻妻妾 相同然.

여여집 평범한 처첩의 존재나 다름 없이 그려려니 陽光灑歲 廣史文史.

햇빛에 바라서 세월에 찌들면, 문장은 역사가 되고 月影照時 潛說證.

달빛에 쪼여 시간이 가면 말들은 녹아 전설이 되니 乙女享平 還比幸.

평범한 여인으로 보통 삶, 사는게 차라리 행복이라 門中過裔 掛懷賢.

권문의 지나는 자손, 음하고 고개숙여 회념에 젖노라

글 권오철 기자

## 수도권, 강원지역 임원간담회 및 보학아카데미 개최



대종회에서는 12월 5일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고봉상계탕에서 권중달 박사(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종보편집위원, 대종회 종사연구위원장)를 강사로 모시고 “안동권씨의 병기달권(炳幾達權)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강원지역 임원간담회 및 보학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학아카데미는 권영장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윤 주밀공파회장, 권병돈 전 정간공종중 회장,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권오윤 전 국회 의원, 권태복 전 평통위원 등 상임위원,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 권영복 서울산악회장, 권순영 국민의 힘 고양갑 당협위원장, 권정호 변호사 등 부회장, 권병후 수원종친회장, 권필원 태사문화회 회장, 권창구 전 원주종친회장, 권순용 전 서울정장년회 사무국장 등 이사, 권영익 주밀공파 목사, 광주종중 회장, 권도현 가나기획 대표, 권기준 문경공 종손 등 종무위원, 권용만 양평종친회 회장, 권대영 서울 금천구 종친회 회장 등 지역회장,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영섭 화백, 권이승 강릉관동대학교 교수, 권태정 전 언론인, 권해조 예비역 장성 등 편집위원, 안동에서 참석한 권기성 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맹배, 대종회 업무현황 보고, 회장 인사말씀, 보학강좌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영장 회장은 “보학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취임 이후 안동권씨 1100년을 향한 대종회 사업계획서를 20여 가지 세웠다. 이

를 위해 정·재계 인사도 방문하고 쇠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힘든 건 사실이다. 찬조금과 회비, 종보대금이 주로 수입원인데 대종회 유지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종보 구독자 수도 확보해야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에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보학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다음에는 부산 대전 등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견을 듣고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중달 교수는 보학아카데미에서 “우리 권문의 뛰어난 활동과 업적은 시조의 병기달권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병기달권이란 아직 짙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미를 훤히 알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강의를 했다.

자치통감을 50여 년 동안 연구하고 세계 최초로 번역한 자치통감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권중달 교수는 〈평설 자치통감〉 8권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며, 권영장 회장은 풍기인삼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 복야공파 충강공 및 동강공 영정 봉안 고유제 봉행



충강공(忠康公, 동계 東溪 欽道權濬, 23세)과 동강공(東山公, 권극양 權克亮, 24세)의 영정(影幀)을 봉안하는 고유제가 충강공종회(회장 권성용, 종손 권병관) 및 동강공종회(고문 권주석, 종손 권용근) 주관으로 2023년 12월 16일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113번지에 소재하는 완계서원(浣溪書院)에서 4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현관(종손 2명) 권병관, 권용근, 아현관 권길상, 종현관 권민호, 집례 권재형, 축 권영록으로 분정하여 봉행되었다.

권갑현 편집위원장

## 권오수 부회장 제2군단장 감사장 표창



득 및 자기개발을 위해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해 온 공로로 제2군단장(중장 장광선)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권오수 부회장은 2007년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년 국가자격증 취득을 향상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고압가스, 에너지 관리, 공조냉동, 배관설비 등에 대해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인협회에서는 가스 안전, 산업재해 예방, 에너지 절약, 환경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자원봉사 및 캠페인을 수년째 펼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 영주종친회 운영위원회 개최



권중수 신임회장

영주종친회운영위원회(회장 권태장)가 12월 27일 11시 영주 축협 3층 회의실에서 권영장 대종회 회장, 권혁태 부회장, 권태상 장년회장, 권오현 청년회장, 권영길 화친회장 등 종친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영장 대종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영주종친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종친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인이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영주종친회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회장이 필요하므로 역량이 있는 분을 회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어서 권태학 운영위원회장은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위원 모두 종친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자고 격려하며 차기 종친회장은 종친회원의 단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륜과 덕망 있는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회의 결과 차기 영주종친회장으로 4명이 추천되어

## 권성옥 기자, 2023 국제웰빙협회 혁신리더대상 언론인상 수상 및 명예박사 학위 취득



권성옥 명예박사(오른쪽)

권성옥(복야공파 36세, 경산종친회) 한청타임즈 기자가 지난 12월 2일 대전 선사인호텔에서 개최한 2023 국제웰빙협회 혁신리더대상 언론인 부문에서 국민기자뉴스 취재기자 92명 중에서 영예의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12월 5일에는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실시한 경북도민행복대학 학위수여식에서 ‘기후환경변화 프로젝트’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성옥은 2019년 5월 24일 평생교육진흥원 도민

권행완 편집국장

정정보도 지난 11월 25일 봉행된 시조 태사공 추향제 현성금(1면 광고)과 4면 주밀공파 평후공 추향제 봉행 기사의 잘못 보도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 구분 | 정정 전 |                                  |         | 정정 후 |              |                                  |         |    |              |
|----|------|----------------------------------|---------|------|--------------|----------------------------------|---------|----|--------------|
| 면  | 번호   | 성명 및 단체                          | 금액(원)   | 지역   | 비고           | 성명 및 단체                          | 금액(원)   | 지역 | 비고           |
| 1  | 11   | 전주완주종친회                          | 300,000 | 전주   | 회장: 권이수(權彝洙) | 전주완주종친회                          | 100,000 | 전주 | 회장: 권이수(權彝洙) |
| 1  | 34   | 권중학(權重鶴)                         | 150,000 | 인천   | ?            | 전주완주종친회                          | 200,000 | 전주 | 회장: 권준근(權春根) |
| 4  |      | 주밀공파 평후공 추향제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단소에서…… |         |      |              | 권중학(權重鶴)                         | 150,000 | 인천 | 추밀공파         |
|    |      | 강천면 가야리에 설단하여 향사를 받들고 있다.        |         |      |              | 추밀공파 평후공 추향제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묘소에서…… |         |    |              |
|    |      |                                  |         |      |              | 강천면 가야리에 이장하여 향사를 받들고 있다.        |         |    |              |